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44> 참된 열반이란

계율이 잘 지켜져야 고요한 선정의 힘이 길러지니 이 선정에서 나오는 지혜가 바로 부처의 깨달음이다. 이 깨달음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 '불생(不生)'이라 하고, 이는 고요한 선정으로서 헛된 생각이 조금도 없으니 '무념(無念)'이라 한다. 또한 이 무념은 모든 번뇌가 사라진 것이니 '열반'이라 할 수 있다. 모든 번뇌가 사라진 그 자리가 열반인데도 중생들은 이 열반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이 열반에 집착하여 번뇌를 일으킨다.

<선가귀감> 45장에서는 이 집착을 깨뜨리고자 참된 열반에 대하여 말한다.

修道證滅 是亦非眞也 心法本寂 乃眞滅也 故曰 諸法從本來 常自寂滅相 도를 닦아 열반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참된 열반이 아니다. 마음이 본디 고요한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열반이다. 그러므로 <법화경>에서 "모든 법은 본디부터 늘 언제나 고요하다"라고 말한다.

"도를 닦아 열반을 얻는다"는 것에서 말하는 열반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말하는 열반이다. 깨달음을 얻어 생사 자체가 열반이 되면 모든 차별이 사라져 중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열반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열반을 추구하는 '주체'와 열반이라는 '객체'가 사라진 이 자리는 본디 고요한 마음으로 서 어떤 법에도 집착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법화경>에서 "모든 법은 본디부터 늘 언제나 고요하다"라고 말한다. 모든 집착이 사라져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이 자리야말로 '참된 열반'이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眼不自見 見眼者 妄也 故 妙善思量 淨名杜默

자신의 눈이 자신의 눈을 볼 수 없는 것이니 자신의 눈을 본다는 것은 거짓 말이다. 그러므로 문수보살은 생각할 것이 없는 곳에서 생각으로 헤아리고, 유마 거사는 침묵할 것이 없는 곳에서 침묵하였던 것이다.

참된 열반은 생사·열반의 집착을 완전히 여의고

중도를 깨달아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자신의 눈이 자신의 눈을 볼 수 없는 것(眼不自見)"은 무엇을 말하는가? 생사니 열반이니 하는 개념들은 모두 실체가 없는 인연들이 모여 허깨비처럼 만들어진 것인데 '깨달음'으로써 이 허깨비들이 사라졌으므로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이다. 열반의 성품은 원래 비고 고요하여 이름과 모양이 끊어졌어도 불공(不空)의 공덕이 있어 인연 따라 모든 일을 성취한다.

그러나 그 바탕 그 자체는 본디 공(空)이어서 실체가 없는 것처럼, 도를 닦아 열반을 얻는다는 것(修道證滅) 역시 인연을 좇는 것이므로 그 실체가 없다.

그러므로 생사니 열반이니 하는 것들은 모두 허깨비와 같다(非眞). 비유하면

자신의 눈이 본디 자신의 눈을 보지 못하듯, '참된 열반'의 성품 그 자체가 평등이어서 생사니 열반이라는 차별로써 열반이라고 말할 것이 없다. '참된 열반'은 마음과 경계가 일어(一如하여 능소(能所)로 드러날 것이 없어 이를 불이법문(不二法門)이라 한다.

둘이 아닌 불이법문(不二法門)이란, 대립하는 두 존재가 본질적으로 볼 때는 '둘이 아니라는 것'을 설한 법문이다. 그리고 이 '둘이 아닌 것[不二]'에 의하여 드러나는 것이 곧 '참된 열반'이다. 생사와 열반의 개념이 상대적이니 생사도 의지하지 않고 열반도 의지하지 않아 양쪽의 집착을 완전히 여의어야 이것이 곧 '참된 열반'이다.

그렇다고 '참된 열반'이라는 것에 또 집착하게 되면, 하나에 대하여 다시 하나 아닌 것이 상대가 되어 둘을 이루니 차별의 번견(變見)에 떨어진다.

그러므로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양쪽을 여의어 양쪽 자체를 찾아볼 수 없고 '참된 열반'이라는 것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참된 열반'에 또 집착하게 되면 결코 진정한 둘이 아닌 것[不二]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열반을 증득했다고 열반에 머무르면 열반이 아니고 성불(成佛)했다고 하여 부처에 집착하면 부처가 아니다. 실제로 중도를 깨달아 양편에 머무르지 않으므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不有]'은 중생들이 경계로 나타나는 색(色)에 집착하니 색(色)이 본디 공(空)이어서 그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있는 유견(有見)

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다.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不無]'은 색(色)이 본디 공(空)이라고 하니 중생들이 공(空)에 집착하므로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공(空)에 대한 집착'을 부수는 것이다.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둘을 파(破)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하나를 파(破)함이니, 유(有)도 파하고 무(無)도 파하며 색(色)도 파하고 공(空)도 파하면 거기에 마땅히 중도(中道)인 열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열반 또한 공(空)이다. 불교에서 늘 말하는 것이지만 양쪽의 집착을 완전히 여의면서 나타나는 열반에 집착하면 그것은 열반을 모르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실로 양쪽의 집착을 여의면 불가득공(不可得空)이라서 열반이라는 것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중생들을 위해 억지로 할 수 없이 '공(空)'이요 '중도'며 '참된 열반'이라고 이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자체는 실체로 공(空)이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불이법문(不二法門)이다. 그러므로 서산 스님은 "문수보살은 생각할 것이 없는 곳에서 생각으로 헤아리고, 유마 거사는 침묵할 것이 없는 곳에서 침묵하였다"고 말한 것이다.

이 불이법문을 설한 대표적인 경전으로는 무엇보다도 <유마경>을 손꼽을 수 있다. 천태 스님도 여러 저서에서 불이법문을 논할 때는 특히 <유마경> 입 불이법문품(入不二法門品)에 나오는 문수보살과 유마거사의 불이법문을 자주 거론하였다. 천태 스님도 서산 스님처럼 <관음현의>에서 "문수는 설하되 설하지 않음으로 불이법문(不二門)을 삼고, 정명은 입을 마음으로 불이법을 삼는다 [文殊 說無說爲不二門 淨名 杜口爲不二門]"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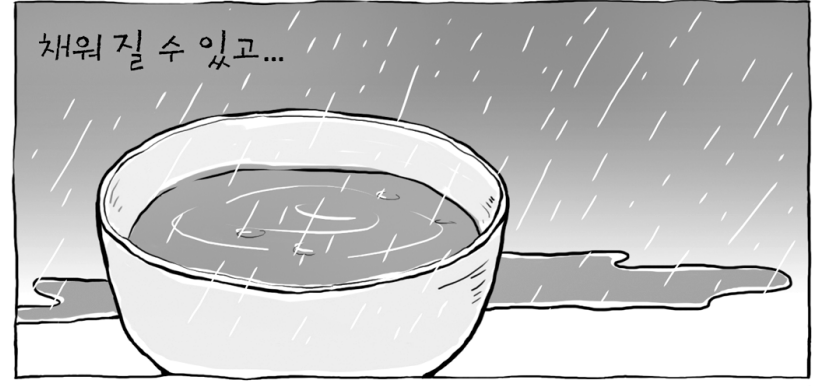
생사를 떠나서 열반이 없으며 도를 닦아 열반을 얻는 것도 아니다. 생사와 열반 양편의 집착을 떠난 중도 자리, 곧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가 마음이 본디 고요한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열반이다.

■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I Love Buddha

용정운(www.buddhailust.org)

마음 비우기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대웅전(大雄殿)

사람의 전각은 집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집 주인이면 대웅전(大雄殿), 비로자나 부처님이 주불(主佛)이면 대적광전(大寂光殿)이라고 합니다. '대적광전' 설명은 다음 호에 하기로 하고, 이번 호에서는 대웅전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대웅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당우입니다. 한 수 격을 올려 대웅보전(大雄寶殿)이라고도 합니다. '대영웅 석가모니를 봉안한 불전'이란 뜻이지요.

어느 불교학과 노교수는 '천웅전(天雄殿)'에서 대웅전이 기원했다고 합니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토속화되는 과정에서 '단군 신앙'을 수용했다는 주장이지요. 부처님의 존재가 당시 사회에서 천웅(하늘 영운)으로 추앙받던 단군과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이후 '하늘 천(天)'자에서 맨 위 가로 획을 떼어내 '큰 대(大)'로 했다고 하는군요.

각설하고, 대웅전은 사람의 중심 전각입니다. 여기에는 협시(脇侍)로 다양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주로 좌우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모시지요. 문수의 지혜(智)와 보현의 행원(行願)을 나타내는 건데, 이것이 기본입니다. 좌우에 선법(禪法)을 상징하는 가섭과 교법(敎法)을 상징하는 아난대를 위치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웅보전이라 할 때는 좌우에 아미타불과 약사여래를 모시고, 문수와 보현보살 대신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협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대웅전이 다양한 협시를 이루게 된 원인은 역시 석가모니의 위신력에 의지하려는 인간의 소박한 기대와 정서 때문일 겁니다. 사실 석가모니가 없는 불교단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철우 기자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19)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65장 여법수지분(如法受持分) 제 13

13장은 지금까지의 재즈식 설법을 총괄하여, '이름'을 부여한다. '금강반야바라밀'이 그것이다. 이로써 설법은 완성되었다! 그리고도 후 오해할까 싶어 노파심의 당부가 이어진다.

원문

爾時, 須菩提白佛言, 世尊, 當何名此經. 我等云何奉持. 佛告須菩提, 是經名為金剛般若波羅蜜, 以是名字, 汝當奉持. 所以者何. 須菩提, 佛說般若波羅蜜, 即非般若波羅蜜, 是名般若波羅蜜. 須菩提, 於意云何. 如來有所說法, 不須菩提白佛言, 世尊, 如來無所說. 須菩提, 於意云何. 三千大千世界所有微塵, 是為多不. 須菩提言, 甚多, 世尊. 須菩提, 諸微塵, 如來說非微塵, 是名微塵. 如來說世界非世界, 是名世界. 須菩提, 於意云何. 可以三十二相見如來不. 不也, 世尊. 不可以三十二相得見如來. 何以故. 如來說三十二相, 即是非相, 是名三十二相. 須菩提, 若有善男子善女人, 以恒河沙等身命布施, 若復有人, 於此經中, 乃至受持四句偈等, 為他人說, 其福甚多.

초벌 번역

이때, 수보리가 부처께 사뢰되, "세존이

시여, 이 위대한 경전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리까. 그리고 어떻게 받들고 지키리이까." 부처가 수보리에게 말했다. "이 경전의 이름을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할지니, 이 이름으로 너는 마땅히 받들고 지키라. 왜냐. 수보리아, 부처가 반야바라밀이라 하지만, 이는 기실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그러기에 반야바라밀이라고 한다. 수보리아, 네 생각에 어떠냐. 여래가 무슨 설한 바가 있느냐." 수보리가 부처께 말했다. "세존이시여, 여래는 설하신 바 없습니다." "수보리아, 네 생각에 어떠냐. 삼천대천세계의 먼지들, 이들은 많겠지." 수보리가 말했다.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아, 이 수많은 먼지들, 이라고 여래는 말하지만 이들은 먼지들이 아니다. 그래서 먼지들이라고 한다. 여래는 수많은 세계를 말하지만, 실은 세계가 아니다. 그래서 세계라고 부른다. 수보리아, 네 생각에 어떠냐. 가히 32상으로 여래를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2상으로는 여래를 볼 수 없습니다. 어쩌서나 하면, 여래가 설하신 32상은 상이 아닌데, 그래서 32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보리아,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항하사 같은 목숨을 보시로 내놓더라도,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 중

에 사구제라도 수지하고, 그것을 다른 이름 위해 설하면, 그 복이 더욱 성대하리나."

보문 번역

이때, 수보리가 부처께 사뢰되, "세존이시여, 이 위대한 경전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리까. 그리고 어떻게 받들고 지키리이까." 부처가 수보리에게 말했다. "이 경전의 이름을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할지니, 이 이름으로 너는 마땅히 받들고 지키라.

것들은 세계가 아니다. 그래서 세계라고(방편으로) 부른다. 수보리아, 네 생각에 어떠냐. 가히 32상으로 여래를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2상으로는 여래를 볼 수 없습니다. 어쩌서나 하면, 여래가 설하신 32상은 기실 설하는 상이 아닌데, 그래서 32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잘 이해하고 있구나." 수보리아, (그렇다. 정말 그렇다. 네가 지금 깨달은 이 '지식'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

트침'에 이름을 짓자고 청한다. 붓다는 거기 '금강반야바라밀'이란 이름을 붙여준다. 그레놓고도 미심쩍었던지,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해온 '오해를 피하는 법'을 노파심으로 다시 들려준다.

- 붓다는 여기 <금강경>에서 무엇을 가르쳤는가. 정리해보자. 탁발을 마치고, 붓다를 둘러앉아 들은 그 '불교'는, 초장부터 상식은 물론이고, 승단의 통상적 이해를 근본적으로 뒤엎들어놓았다. "내가 그동안

치고, 이 말을 끝이 들을 자 있겠습니까"라고 묻는다. 그는 오랜 500년들의 쇠퇴기를 거친 말세의 중생들이 붙잡고 있는 희망의 등불이 못내 걱정되었던 것이다.

- 붓다는 이 부정과 부재의 선언이야말로 말후구(末後句), 불교의 진정한 희망임을 역설적으로 강조한다. "사즉생, 생즉멸사(死即生, 생즉必死), 일전을 불사해아 전쟁을 막고, 허공에 발을 내딛어야 길이 생기듯이, 외물(外物)에 기대는 바가 없을 때,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동력의 자유와 힘을 얻는다.

- 이렇게 듣고 보니, 이 얘기를 어디에선가 들은 적이 있지 아니한가.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 바로 그것이다. 만해는 세속의 시적 감성으로 <금강경>이 설파하는 '최상승'의 역설을 은유하고 있다. 그동안 사람들은 만해가 <불교대전>의 저자이자, <조선불교유신론> 그 휘황한 고금(古今)의 문체로 혁명적 취지를 설파한 '승려'였다. 그것을 편파적으로 해설해 왔고, 그 바람에 금강부회 또한 적지 않았다. <금강경>의 코드로 <님의 침묵>을 다시 읽어 보자.

- "님은 갑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갑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지 않습니다.(중략)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전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겹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배기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님은 갔지만은 나는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이기는 사랑의 노래의 노래는님의 침묵을 휩싸고 듕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님의 침묵'이 '금강경'을 설파?



이 항하사 같은 목숨을 보시로 내놓더라도,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 중에(핵심) 사구제를 수지하고, 그것을 다른 이름 위해 설파하면, 그 복이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고 성대하리나."

부연 해설

- 지금까지 긴 문답을 들었다. 가 르친 것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보다. 수보리는 취지를 충분히 알겠다면, 그 '특별한 가

허를 두드려 가르친 바 '불교'는, 그대들의 그릇된 자아의식을 부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 가르침이 파하면, 그 복이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고 성대하리나."

수보리는 처음 이 혁명적 선언에 경악했다. 가 르친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오랫동안 준비된 붓다의 파트너 제자를 수보리는 고개를 들고, "나야, 그렇다